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성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위원

코로나 시대, 심화된 불평등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로 촉발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충격을 단기간에 경험했다. 팬데믹 초기 기간 학교와 공공시설은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았고 그 시간 동안 학생과 청소년들은 집이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학교가 책임있고 있던 시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은 혼자 집에 있게 되는 일이 많았으며 그 시간 동안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상당했다. 공공시설 등이 담당하고 있던 돌봄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게 됨에 따라 돌봄 대란이 사회적 어려움으로 대두됐다.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경우가 상당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관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들도 코로나19 기간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상당했으며 취업, 학업 등과 관련된 미래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 수정해야 했다.

아동 청소년기의 당연한 사회적 관계와 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에서 배제돼 상당히 오랫동안 혼자 집에서 생활하게 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무기력을 호소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도록 했으나 미디어 장비 보유의 차이 등으로 학습 여건에 차이가 있어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의 수준, 옆에서 학업지원을 해주는 어른의 유무 등에 따라 학습격차도 확대됐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진 듯 보일 수도 있겠으나, 많은 전문가는 앞에서 말한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악영향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 경험한 양육환경의 불평등이 추후 성장기 전반에 지속되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발달과정상의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아동 청소년이 추후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위험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아이들의 꿈에도 사회적 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인간, 평화, 지구, 파트너쉽 SDGs가 주는 교훈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난 1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으로 정의된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이후 시대적 조류와 국제 사회 공통의 노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 해당 개념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

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 목표(UN-SDGs)의 중요 구성 요소로 번영, 인간, 평화, 지구, 파트너십을 들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또한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을 전략으로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유엔의 지속 가능발전목표와 그 흐름을 함께 하면서도 한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것이다. 고도성장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을지도 전 세계가 함께 번영하기 위해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의 이러한 정신은 “회복과 포용”을 강조하는 최근 포스트코로나 정부 정책 방향에도 적극 반영되고 있다.

혁신적 회복 과정이 중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많은 학자가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자 웜홀(wormhole)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성

찰을 토대로 적응과 전환, 변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포

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도 지속가능성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는 앞으로 그 번영과 평화를 모든 지구촌 구성원과 함께 지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보다 잘 회복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현재의 삶을 함께 건강하게 영위하고 미래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번영을 위해 미래에 활용할 자원과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기구와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특히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계획 수립과정 및 이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요시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고려 여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 여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고려 여부, 국제사회 협력과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려 여부 등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세대의 편익 추구를 위해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지 여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및 일자리 창출 부합 여부 등을 강조한다.

UN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대응과 더불어, 삶과 생계의 보호, 혁신적 회복을 들고 있다. 특히 혁신적 회복과 관련해 기본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와 경제를 위한 기회를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혁신적 회복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기후위기, 불평등, 사회적 배제, 사회보장체계의 간극, 이외의 많은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사회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부합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속 가능한 식량공급 체계, 성평등, 더 나은 사회안전망, 보편적 의료 보장, 이를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OECD 또한 포스트코로나에 보다 잘 대응하고 회복하기 위해, 미래에 닦칠 수 있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개인, 사회, 국가 등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응급 대응을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목표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취약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표적화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